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열정의 시대를 넘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68 학번,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중앙상임집행위원 및 정책실장, 전국노동단체연합 의장, 푸른사회연대 상임대표(현)

한 경 남

나보고 박정희 정권과

처음으로 맞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학교 시절이 아니라 군 시절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기집권이 고개를 들던 69년 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일이다. 갑자기 입영통지서가 날아들어 군에 입대했는데 몇 개월 뒤 부대에서 3선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한 것이다. 말이 선거지 자다말고 한 사람씩 일어나 내무반 한 쪽 침상 모서리에 앉아 있는 중대장과 인사계가 보는 앞에서 기표를 했다. 문제는 투표가 끝난 뒤 일어났다. 중대에서 반대표가 몇 장 나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이었다. 화가 난 부대장이 전출시키겠다고 해 '터블백'을 싸놓고 몇 시간 동안 대기했던 기억이 난다.

10월유신은 72년 4월, 내가 제대해서 마포의 어느 친구 학원에서 중학생을 가르치고 있을 때 단행되었다. 유신독재에 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부족도 절감했다. 복학을 앞두고 사회과학 공부부터 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책이 없었던 관계로 대형 경제학사전 하나를 구해가지고 혼자 씨름했던 기억이 난다. 용어 하나를 공부하다 거기에 나오는 연관 용어를 찾아가는, 말하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계속된 내 공부방식은 무식하긴 했으나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나중에는 정치경제학이나 철학을 나름대로 이해하

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청학련 사건과 나

73년 복학하자마자 준비된 사람처럼 유신헌법 철폐 투쟁에 참가했다. 마이크를 잡고 선동 연설도 했고 '유신헌법 철폐',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대운동장을 돌기도 했다. 민이연 동지들과 정경대 한방우, 한사회 이희원, 민이연 손태인 제 씨도 만났지만 고인이 된 안희대와 학원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제갈철 등과 종종 유신반대투쟁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74년 봄학기에 대비하여 긴장 속에서 지내던 어느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안기부에 끌려갔다.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민청학련 관계로 긴급조치4호가 발동된 것을 알게 되었다.

황당한 것은 내가 그 조직의 고려대 책임자로 나와 있다는 것이다. 유인태나 이철과 만난 적이 없는 나보고 무조건 실토하라는 것이었다. 조사도 고통스러웠지만 조사받지 않을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사면이 온통 하얀 어느 방에 면벽 상태로 홀로 앉아 있었는데 그 방 입구만이 아니라 내 등 뒤에도 집총을 한 군인이 서 있었다. 하루이틀은 버티었지만 이삼일 뒤부터는 졸음이 와 나도 모르게 쓰러지거나 고개를 숙인 채 자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등 뒤에 있던 군인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나의 어깨를 짚거나, 쓰러지면 발로 짓밟곤 했다. 조사받다 자고, 자면 맞고, 앉으면 졸고, 졸면 맞는 식의 혼미상태가 며칠간 계속되었고 급기야 날짜 개념조차 없을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다. 약 2주 가량 뒤로 기억되는데 안기부에서 서대문구치소로 넘겨져 구속되었다. 서대문구치소에 구속되고서도 한동안 안기부로 불려나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 얼마 후 검찰 기소단계에서 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서울대 모 씨가 민청학련을 결성하면서 나를 추천했고 나를 만나려고 고대를 몇 번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이 발각되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사연을 들었다. 그 후유증으로 수 개월 간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

전국학생연맹을 결성하다

긴급조치4호에도 불구하고 재야든 학내든 반유신 움직임이 더욱 고양되어 갔고 그 과정에

서 문세광 사건까지 터졌다. 위기의식을 느낀 군사정권은 반공을 빌미로 더욱 탄압과 사찰을 강화하였다. 나에 대한 사찰도 한층 강화되었는데 나날의 생활은 나와 정보요원과의 숨바꼭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74년 가을, 서울대 친구 심지연을 만나면서 전국적 동지들을 규합하며 유신체제철폐투쟁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마땅한 활동 근거지가 필요했는데 마침 중앙대 출신 이명준이 명동성당과 깊은 관계가 있어 그 친구의 노력으로 명동성당 이모 신부 방을 아지트로 사용키로 했다. 우리 사건이 터진 후 그 신부는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로마로 유학을 떠났는데 귀국 후 태도가 돌변한 신부로 유명하다.

전국학생연맹의 결성과 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명동성당에 아지트를 마련한 후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세가지 원칙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국조직을 지향하나 조직 결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활동하면서 조직화한다, 동지를 천거할 경우 반대자가 있으면 가입시키지 않는다, 7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하고 합의제로 운영한다 등이었다.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명동성당 지하실에 먼저 가리방을 갖춰 놓고 유인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심지연, 박홍석, 연대 강기중, 김용석, 외대 신경식, 강원대 최열, 경북대 여석동, 이대 김지선, 중대 이명준, 백남기 그리고 고대는 나와 조성우 등 많은 동지들이 참여했다. 이중 심지연, 박홍석, 신경식, 이명준, 조성우 그리고 내가 7인 멤버로 활동했다. 4월 8일 고대에 긴급조치7호가 발동됐고 4월 11일엔 서울농대 김상진이 집회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터졌다.

우리 조직도 고대, 연대, 외대 등으로 확산시켜가면서 봄학기 투쟁에 참여키로 하였다. 고대에서는 내가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긴급조치7호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던 청년회 김현웅이 이미 참여하여 학내 흐름과 동향을 알려주거나 유인물을 명동성당에서 반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박계동도 참여키로 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 투쟁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명동성당 아지트가 남산에 발각돼 쫓기는 신세가 됐다. 신부가 갑자기 우리에게 나가 달라고 했다. 성당에서 활동한 지 약 7개월 만의 일이었다. 74년 10월경부터 75년 5월 조직이 발각되어 체포될 때까지 우리가 직접 가리방을 굶으며 만들어낸 유인물만 해도 십여 종이나 되었고 그것도 한 번에 수백 장씩 인쇄해 각 대학과 지방으로 반출시켰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엄한 명동성당을 오랫동안 들락거리며 전국조직을 만들고 많은 유인물을 생산, 반출시킬 수 있었

던 것은 그나마 우리들의 철저한 위장술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는 명청 재건작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했는데 성당 지하실에서 약식 세례까지 받고 교우 노릇도 했다. 요한 심지연, 바울 조성우, 클레멘스 이명준, 스테파노 한경남 식이었는데 우리는 이 세례명을 암호로 사용하며 활동했다.

김낙중 선생과 신영복 선배

명동성당 전국학생연맹사건은 긴급조치9호 사상 최대의 조직 사건이자 최초로 재판을 거부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심리공판 첫날 우리는 약속대로 긴급조치9호를 부정하는 차원에서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우리들의 일관된 재판 거부 행동의 결과, 재판사상 초유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어느날 갑자기 비밀리에 한 사람씩 판사 집무실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판사는 판결문도 낭독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나는 15년 구형에 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했다.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0.75평의 특별사독방에서 반 년 가량을 보냈다. 처음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였는데 차츰 적응하기 시작해 나중에는 벽을 사이에 두고 모르스 부호를 두드리며 통방을 하는 전문가로 변했다. 일반수형자 방으로 옮겨져 얼마를 보낸 후 비로소 5공장(세탁공장)으로 출역하게 되었다. 첫날 출역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뜻밖에도 김낙중 선생님과 노중선 선배를 만났다. 얘기를 들으니 당시 합상근은 3공장(인쇄공장)에 출역하고 있었다. 김낙중 선생님은 출역 기념으로 꼴꼴이죽을 만들어 몰래 나에게 건네주었다.

5공장 생활은 내가 교무과로 출역하면서 끝났다. 대전지역 수녀원의 원장님 배려였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반장 격인 이재학 선생의 지시를 받으며 재소자에게 책을 대여해주는 일을 했다. 통혁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분이었는데 그 분과 일하면서 영사기술도 배웠다.

당시 교도소에서는 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일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해 주었는데 교무과 소관이라 16밀리 짜리 낡은 필름을 가져다 우리가 직접 틀어주곤 했다. 하도 필름이 낡아서 영사기를 돌리다 몇 번이고 필름이 끊기곤 했는데 그때마다 재소자들이 휘파람을 불면서 난리법석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끊어진 필름을 잇는 기술을 배워야 했다.

교무과 출역은 비교적 편안한 생활이었다. 일요일이면 교무과에 출역하는 관계로 안면을 익힌 몇몇 교도관의 목인 하에 요령껏 운동장에 나가 테니스를 즐기곤 했다. 내가 쓰던 라켓은 김낙중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주신 것으로 기성품 못지 않게 좋았다. 방 생활의 대부분은 일본어 공부로 보냈다. 이재학 선생한테서 일본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놓고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권한권 졸업하다 보니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게다가 옆방이 일본인 히로뵙 수감자 방이었던 덕택에 그들한테서 소설책도 빌려 보았고, 운동 시간엔 함께 운동장을 돌면서 회화를 익히는 등 일어 공부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출역이 다시 금지되면서 교무과 출역도 끝장났다. 이번엔 심지연과 같이 서예방으로 전방되었다. 그 방은 소위 '서예반'으로 붓글씨 연습이 특별히 허락된 방이었다. 신영복(성공회대 교수), 박성준, 이구영(한말 유인석 장군 비서장이었던 이강년 선생의 조카)씨 등 6명과 긴급조치 관련 우리 두 사람을 합해 8명이 출역이 금지된 채, 방에 갇혀 생활했는데 나는 그곳 생활 중에 특사로 풀려났다. 신영복 선배의 붓글씨는 이미 일정한 경지를 이룬 상태였다. 출옥 후 펴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당시 오고간 편지 모음으로서 그때 간간히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또 한 분 잊을 수 없는 이구영 선생은 한문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당시 구한말 의병운동을 번역하고 계셨다. 기상에서 취침까지 그 분들과의 생활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그분들의 생활 자체가 나의 학교였다. 석방된 그해 겨울 나는 김달호 선생의 사회대중당에 관계했던 임병춘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였다.

새로운 청년조직을 모색하다

나는 출옥 후 결혼을 하고서도 심지연, 선정식 등 전국학생연맹 동지들뿐만 아니라, 유영래, 이태복 등 새로운 동지 등과 만나 당시 활동하던 민청협이 이념적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청년조직체 건설을 모색코자 했다. 당시 우리는 정례적으로 만나 거칠지만 한국사회의 모순 구조나 그 대안으로서 변혁론 등을 논의했던 기억이 난다. 모임은 5.18로 중단되었는데 83년 민청련이 창립되면서 우리들의 문제의식과 논의의 상당 부분은 민청련으로 수렴되었다고 본다. 84년 부천, 김근태 당시 의장 집에서 김 의장, 김병곤, 나(당시 부의장 겸 <민주화의 길> 편집인) 셋이서 CNP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우리 사회가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중첩된 사회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후에 이런 나의 입장은 NLPD 좌파론으로 객관화되지만 당시 우리는 그런 전략적 차이에 문패를 붙이지 못한 채, ND론, PD론 및 그 중간으로 대충 정리한 기억이 난다.

78년 5월 출옥 이후부터 80년 5.18까지 내 활동에서 사회과학 출판사 생활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다. 대부분의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가정을 가진 제적생인데다 사회과학 붐이 일면서 생업이자 의식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출판운동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내가 처음 취직한 출판사는 '새발'이었다. 고향이 대전인 사장은 전직 교사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 의기투합한 끝에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도서출판 새발'을 만들게 되었고 내가 편집장을 맡았다.

새발출판사는 '풀빛', '광민' 등과 함께 본격적인 사회과학 번역본을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출간한 <교육과 의식화>, <소유의 역사>,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은 그후 의식화 교재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80년 5.18사태로 1년 동안의 수배생활 끝에 81년부터 83년까지 2년 간 '도서출판 한빛', '월간 학생과학' 등 출판사에 또 한번 몸담았던 때가 있었는데 특히 '한빛'에서 주간으로 일했을 때에는 주로 변증법 등 철학서적을 출판하면서 이을호 등 당시 서울대 헤겔철학 모임과 인연을 맺었던 기억이 난다.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 벌어 가정에 보탬이 됐던 때가 아닌가 싶다.

5.18과 수배생활

새로운 청년조직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 80년 서울의 봄 시절, 이대에서 전국 학생대표들이 모였던 5월 16일 저녁, 우리는 정세를 분석하면서 밤 늦게까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모임 중 박홍석 씨에게 갑자기 이대로부터 전화 한 통이 날아왔다. "아무래도 수상하니 빨리 도망 가라!" 그러나 우리는 그 전화를 받고도 "설마 우리까지..." 하면서 회의를 계속했다. 1년 동안 수배생활이 시작됐는데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설훈이 국민연합 성명서를 나한테서 받아 학교 대자보로 붙인 게 설훈 체포 뒤 드러났던 모양이다.

1년간의 수배 중 금성출판사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수배생활에 들어가면서 생계 때문

에 직장을 구하려고 선을 대고 있었는데 마침 시인 민영 선생의 도움으로 마포의 금성출판사 편집부 일어 번역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영 선생한테 암전히 지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보고 그만 이를 시정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조합 결성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묘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어느날 출판사 백모 전무가 나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모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위 '직장 정화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라 받아들이 수밖엔 없어 동료들에게 조용히 작별인사를 했는데 그들이 고맙다고 위로 금까지 모아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나를 자르는 대신 직장의 임금체계를 합리화시키면서 다소 임금까지 인상시켜 주었으니 고맙다는 것이었다. 수배생활 동안 내 아내와 막 태어난 큰 딸은 당시 특수수사대로부터 밤낮없는 수색과 위협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유신의 종말 또한 거친 숨결을 토해다. YH 노동자 신민당사 점거, 부마항쟁 그리고 갑작스런 박정희의 죽음, 그리고 짧은 '서울의 봄'을 거친 뒤 찾아온 전두환의 반동 시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격동의 70년대를 딛고 80년대의 대중적 성장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긴조 시대는 8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민중운동, 민족민주운동의 밑거름이 된 시기이다.

긴조 시대는 사회과학 출판운동을 고리로 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민중투쟁 등 운동의 과학화, 대중화의 이념적 토대로 역할하였다. 긴조 시대의 단련된 활동가들은 80년대 민중운동의 참모부로서 특히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각계각층 대중운동의 발전을 이끈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산개하여 그들은 각 부문대중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긴조 시대 활동가 상호간의 동지적 관계와 인간적 교류는 지역과 부문을 넘어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들에 의해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은 연합운동과 구심형성에 낭비를 줄이고 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긴급조치 시대는 우리 사회의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역사적 시기이자 내 인생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시기였다. 나는 그 시기를 딛고 80년대를 뛰었고 90년 노동 현장 속에서 살다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 · 평화 · 통일 시대를 위하여



장영달_ 국민대 행정학과 68학번. 1974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 선고,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초대부의장, 2003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 조직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전주 · 완산갑,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의원)(현)

1974년 봄, 나로서 3년 동안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부지런히 학업에 열중하여 졸업하면 취직을 반드시 해야 할 입장이었다. 시골에서 평생농부로 살아 가시는 부모님과 생계 꾸리기에 급급한 8남매를 보아서도 나는 소박하게 나의 생계, 장래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충실해야 했다. 돌이켜보면 실존적 현실을 무시한 당시의 나의 삶을 무어라 설명해야 옳을 것인지!

기독교학생운동에 뛰어들며

서울 남산의 시민집회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을 비판하고 나선유인물 살포사건이 발생했고 박형규 목사님은 구속되었다. 아마도 유신독재에 집단으로 항거하기 시작한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 기독교학생운동권은 전국대학에 펼쳐진 KSCF(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조직을 총체적으로 연결하며, 침묵속의 유신체제 돌파를 위한 투쟁전선을 전개하였다.

나는 국민대 기독교학생회장겸 KSCF 기획부장으로 최민화, 황인성, 서창석, 김경남, 신대균, 이원희, 김형기, 김혜숙 등과 함께 이곳저곳 숨죽이며 유신철폐운동을 준비하고 다녔다.